

#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경험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전 주 혜(중앙대학교 아동·가족학 전공 석사)

박 정 윤(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는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이전 세대의 가족관계 유형이 다음 세대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론에 기초하여, 원가족의 경험에 대한 영향력이 양육효능감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중 원가족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므로 본 연구는 부모로서의 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가족의 영향과 관계를 여러 변인들을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원가족 경험은 원가족 건강성, 부모의 아동기 경험, 자기분화로 보고, 첫 자녀가 만3-7세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성에 따라 이 변인들이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첫 자녀가 만3-7세 자녀를 둔 부모 총 260명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는 원가족 경험, 양육효능감 각 요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성에 따른 차이는 원가족에서 부와 모로부터의 정서적 단절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원가족에서 자신의 부모와의 정서적 단절을 적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는 아버지의 경우, 소득만족 정도와 원가족에서 모의 취업유무에 따라 양육효능감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족의 월평균 소득을 보통이라고 지각한 집단의 아버지들과 어린시절 원가족에서 어머니가 전업주부였던 경우, 아버지가 양육효능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연령, 가족 월평균 소득, 원가족에서의 경제수준에 따라 자녀에 대한 양육효능감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어릴수록, 현재 가족 월평균 소득을 보통이라고 지각할수록, 원가족에서의 경제수준 역시 보통이라고 지각하는 경우, 자녀에 대해 부모로서의 양육효능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원가족 경험과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원가족 건강성, 아동기 때 부모로부터의 독립성, 수용적인 양육경험, 건강한 분리경도와 부모로서의 양육효능감이 정적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 부모 모두 원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기 때 부모로부터 독립성과 수용적인 양육을 경험할수록,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분리될수록 부모로서의 양육효능감이 높았다. 또한 아버지는 부모로부터 정서적 단절과 삼각화 경험을 낮게 인지할수록 높은 양육효능감을 보였다. 넷째, 관련변인들이 부모효능감에 주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전체 영향력은 14~45%였고,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인 원가족 변인은 원가족 건강성(부:β=.50, p<.001, 모:β=.33, p<.001)이며, 부와의 삼각화 수준의 경험(부:β=.23, p<.05, 모:β=.20, p<.05) 변인도 공통 영향변인이었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원가족에서 부모로부터 수용된 경험(β=.45, p<.001), 모로부터 수용된 경험(β=.41, p<.001)도 양육효능감을 예측하였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에는, 총 자녀수가 둘 이상일수록, 출생가족 유형이 확대가족일수록, 원가족에서의 어머니가 전업주부일 경우, 현재의 자녀양육에 있어 더 높은 양육효능감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성에 따라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원가족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있어 원가족의 영향력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토대가 되어 현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그 효능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가족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서 원가족 부모의 역할과 부모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건강한 양육을 위한 정보 제공을 비롯한 올바른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들에게 건강한 원가족 경험을 전수해 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건강한 원가족 경험 및 부모역할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 및 부모역할 지원 정책을 위한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